2025년도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BK FOUR 21 제작지원

CAMPUS HUMAN RIGHTS REPORT

ERICA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2026. 2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HANYA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CAMPUS HUMAN RIGHTS REPORT

ERICA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2026. 2



Contents
보고서 목차

PART 01	서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5
		제 2 절	보고서 구성	6
PART 02	조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7
		제 2 절	조사내용	7
		제 3 절	분석방법	9
PART 03	조사결과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10
		제 2 절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12
		제 3 절	성역할 고정관념	15
		제 4 절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	18
		제 5 절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20
		제 6 절	인권침해 경험	26
		제 7 절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 경험	35
		제 8 절	인권교육	41
		제 9 절	자유 응답 내용	45
PART 04	결론			49
PART 05	제언			52
<참고 문헌>				54
<부록>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55

표목차



<표 1>	조사 문항	7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10
<표 3>	단과대학별 성별 및 국적빈도	11
<표 4>	인권센터 인지도	13
<표 5>	인권센터 인지 경로 (복수응답)	13
<표 6>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4
<표 7>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복수응답)	15
<표 8>	성역할 고정관념 신뢰도	15
<표 9>	성역할 고정관념 평균	16
<표 10>	성별에 따른 성역할 및 성평등 인식의 차이	17
<표 11>	성폭력 허용도 신뢰도	18
<표 12>	성폭력 허용도 평균	19
<표 13>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20
<표 14>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복수응답)	21
<표 1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복수응답)	22
<표 16>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복수응답)	23
<표 17>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식	24
<표 18>	성희롱·성폭력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25
<표 19>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26
<표 20>	인권침해 경험	26
<표 21>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27
<표 22>	인권침해의 유형 (복수응답)	29
<표 23>	인권침해 가해자 특성 (복수응답)	30
<표 24>	인권침해 발생 장소 (복수응답)	31
<표 25>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32
<표 26>	인권침해 발생 시 소극적 대응 이유	33
<표 27>	인권침해 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33
<표 28>	인권침해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34
<표 29>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한 점	35
<표 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36
<표 3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37
<표 32>	학업 및 연구 피해의 유형 (복수응답)	38
<표 33>	학업 및 연구 피해 가해자 (복수응답)	39
<표 34>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장소 (복수응답)	40
<표 35>	학업 및 연구 피해 발생 시 대응방식	41
<표 36>	학업 및 연구 피해 발생 시 소극적 대응 이유	41
<표 37>	인권교육 경험 (복수응답)	42
<표 38>	인권교육 장소	42
<표 39>	인권교육 도움 정도	43
<표 40>	인권교육 필요성	44
<표 41>	인권 존중 수준	45

그림목차

<그림 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20
<그림 2>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21
<그림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22
<그림 4>	성희롱·성폭력 발생장소	23
<그림 5>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식	24
<그림 6>	인권침해 경험 유무	26
<그림 7>	인권침해 유형	29
<그림 8>	인권침해 가해자 특성	30
<그림 9>	인권침해 발생 장소	31
<그림 10>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32
<그림 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34
<그림 1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35
<그림 13>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	36
<그림 14>	학업 및 연구피해 유형	38
<그림 15>	학업 및 연구피해 가해자 특성	39
<그림 16>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장소	40
<그림 17>	인권교육 도움정도	43
<그림 18>	인권교육 필요성	44
<그림 19>	인권존중 수준	4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 인권센터는 1990년대 중후반 대학가에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담과 사건처리를 담당하기 위한 성평등 관련 기구가[1] 설치되기 시작한 것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성평등 관련 기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대학 내에서는 성 사안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기존 성평등기구를 확대·개편하여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학원생 인권문제'가 중요한 대학 인권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2].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3]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전국 대학 총장과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 인권 전담기구 설치, 정기 인권교육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권고하였다.[4] 이후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2022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기에 이르렀다.

인권 전담기구라는 것은 인권의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remedies)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대학에서는 인권센터가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및 구제를 담당하는 핵심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강요, 괴롭힘, 혐오표현, 차별, 연구실 내 권력 남용 등 다양한 인권침해들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원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 참여자, 조교 및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실 내 위계관계와 권력구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또한 학위과정, 논문지도, 연구수행, 장학금, 진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환경 및 학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이슈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대학원생의 인권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인권 이슈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인권센터의 정책 수립 및 교육·예방 사업, 인권침해 사건의 회복적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각 대학마다 명칭은 다를 수 있음.
2)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3) 이인규 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5.
4)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16.11.4

제 2 절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제 2 장은 '한양대학교 ERICA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과 절차를 서술하고 설문지 구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제 3 장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통계분석 결과가 통계표와 함께 상세하게 서술된다. 조사결과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과 현황,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등이 다양하게 소개될 것이다.

제 4 장은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제 5 장은 인권센터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인권보호 방향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조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의 대상은 '한양대학교 ERICA 대학원생' 이다. 2025년 2학기 학적 등록 상태에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조사는 2025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다. 조사 참여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설문은 온라인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5년 12월 5일까지 총 22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학부생이 응답한 8부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남성 91명(41.7%), 여성 126명(57.8%), 기타(논바이너리) 1명(0.5%)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대학원 과정, 소속, 전공, 국적 등의 기초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센터 인지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 대학원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 문항을 포함하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경험 유무, 피해 유형, 행위자의 특성, 발생 장소, 대응방식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 현황과 대처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침해 경험 유무, 인권침해 유형, 행위자의 특성, 발생 장소, 대응방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 피해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과 도움이 되었던 지원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관련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 유무, 피해 유형, 대응방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 조사 문항[5)]

분류	문항
기초정보(7)	성별(1문항), 연령(1문항), 대학원 과정(1문항), 학기(1문항), 소속(1문항), 전공(1문항), 국적(1문항)
인권센터 인식 및 개선안(5)	-인권존중 인식(1문항) -인권센터 인지도(1문항) -인권센터 인지 경로(1문항)

	-인권센터의 역할인식 (2문항)
성인지감수성(28)	성역할 고정관념(16문항), 성폭력허용도(12문항)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9)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유무(1문항) -성희롱·성폭력의 유형(1문항) -행위자의 특성(2문항) -발생 장소(1문항) -피해시 대응방식(1문항) -문제제기하지 않은 이유(1문항)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1문항)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1문항)
인권침해 경험(10)	-인권침해 경험유무(1문항) -인권침해의 유형(1문항) -행위자의 특성(2문항) -발생 장소(1문항) -인권침해시 대응방식(1문항)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1문항)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1문항)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1문항) -사건처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문항)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18)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유무(1문항) -학업 및 연구피해의 유형(12문항) -행위자의 특성(2문항) -발생 장소(1문항) -학업 및 연구피해발생시 대응방식(1문항)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1문항)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4)	-1년간 받은 교육 유형(1문항) -교육을 받은 곳(1문항) -교육의 도움정도(1문항) -인권교육의 필요성(1문항)
의견 수렴(3)	-인권존중 대학문화를 위한 역할(1문항) -학내에서 필요한 교육 주제(1문항)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1문항)

5) 부록 참고

제 3 절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9.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은 특정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등 통계적 처리를 하였고, 척도의 특성에 따라 집단간 비교를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범주형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인권침해 경험,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 3 장 조사결과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총 21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학위 과정, 소속 대학, 국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26명(57.8%), 남성이 91명(41.7%), 기타가 1명(0.5%)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88명(8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0대 19명(8.7%), 40대 11명(3.7%), 50대 1명(0.5%), 60대 2명(0.9%)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가 주로 20대 연령층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위 과정별 분포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이 129명(5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박사통합과정이 49명(22.5%), 박사과정 40명(18.3%)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별로는 공학대학이 92명(42.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글로벌문화통상대학이 26명(11.9%), 경상대학이 21명(9.6%),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 19명(8.7%)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전공분야의 대학원생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50명(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응답자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56명(2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8*)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1	41.7
	여성	126	57.8
	기타	1	0.5
연령대	20대	188	86.2
	30대	19	8.7
	40대	11	3.7
	50대	1	0.5
	60대	2	0.9
과정	석사과정	129	59.2
	박사과정	40	18.3
	석박통합과정	49	22.5
소속	공학대학	92	42.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5	6.9
	약학대학	11	5.0
	첨단융합대학	17	7.8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6	11.9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	19	8.7
	경상대학	21	9.6
	디자인대학	12	5.5
	예체능대학	4	1.8
	기타	1	0.5
국적	한국	150	68.8
	중국	56	25.7
	대만	1	0.5
	베트남	5	2.3
	인도네시아	2	0.9
	인도	2	0.9
	태국	1	0.5
	콜롬비아	1	0.5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표 3〉 단과대학별 성별 및 국적 빈도 (단위: 명(%))

구분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첨단융합대학	글로벌문화통상대학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기타
성별	남성	49 (53.3)	8 (53.3)	2 (18.2)	13 (76.5)	5 (19.2)	2 (10.5)	8 (38.1)	2 (16.7)	1 (25.0)	1 (100)
	여성	43 (46.7)	7 (46.7)	9 (81.8)	4 (23.5)	21 (80.8)	16 (84.2)	13 (61.9)	10 (83.3)	3 (75.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5.3)	0 (0.0)	0 (0.0)	0 (0.0)	0 (0.0)
	전체	92 (100)	15 (100)	11 (100)	17 (100)	26 (100)	19 (100)	21 (100)	12 (100)	4 (100)	1 (100)
연령대	20대	84 (91.3)	15 (100)	9 (81.8)	17 (100)	19 (73.1)	15 (78.9)	16 (76.2)	11 (91.7)	1 (25.0)	1 (100)
	30대	6 (6.5)	0 (0.0)	2 (18.2)	0 (0.0)	4 (15.4)	1 (5.3)	4 (19.0)	1 (8.3)	1 (25.0)	0 (0.0)
	40대	2 (2.2)	0 (0.0)	0 (0.0)	0 (0.0)	1 (3.8)	3 (15.8)	1 (4.8)	0 (0.0)	1 (25.0)	0 (0.0)
	50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0)	0 (0.0)
	60대	0 (0.0)	0 (0.0)	0 (0.0)	0 (0.0)	2 (7.7)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92 (100)	15 (100)	11 (100)	17 (100)	26 (100)	19 (100)	21 (100)	12 (100)	4 (100)	1 (100)
과정	석사	59 (64.1)	10 (66.7)	2 (18.2)	8 (47.1)	11 (42.3)	15 (78.9)	16 (76.2)	6 (50.0)	1 (25.0)	1 (100)

	박사	12 (13)	4 (26.7)	1 (9.1)	3 (17.6)	7 (26.9)	4 (21.1)	3 (14.3)	3 (25.0)	3 (75.0)	0 (0.0)
	석박통합	21 (22.8)	1 (6.7)	8 (72.7)	6 (35.3)	8 (30.8)	0 (0.0)	2 (9.5)	3 (25.0)	0 (0.0)	0 (0.0)
	전체	92 (100)	15 (100)	11 (100)	17 (100)	26 (100)	19 (100)	21 (100)	12 (100)	4 (100)	1 (100)
국적	한국	78 (84.8)	13 (86.7)	11 (100)	17 (100)	7 (26.9)	10 (52.6)	8 (38.1)	2 (16.7)	3 (75)	1(100)
	중국	4 (4.3)	1 (6.7)	0 (0)	0 (0)	19 (73.1)	9 (47.4)	12 (57.1)	10 (83.3)	1 (25)	0 (0)
	대만	0 (0)	1 (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베트남	5 (5.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도네시아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1(4.8)	0 (0.0)	0 (0.0)	0 (0.0)
	인도	2 (2.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태국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콜롬비아	1 (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92 (100)	15 (100)	11 (100)	17 (100)	26 (100)	19 (100)	21 (100)	12 (100)	4 (100)	1 (100)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제 2 절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본 절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인권센터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인권센터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우리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218명 중 162명(74.3%)이 '알고 있었다' 고 응답하였고, 56명(25.7%)은 '지금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4분의 3이 인권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센터의 교육 및 홍보활동이 일정 부분 대학원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응답자의 25.7%는 여전히 인권센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인권센터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었다	지금 알게 되었다	합계
인권센터 인지도	162(74.3)	56(25.7)	218(100)

인권센터를 알게 된 경로를 확인한 결과,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경우가 84명(3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물(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66명(27.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총 150명(62.3%)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인권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인권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59명, 24.5%)과 인권센터 축제 부스 및 인권강연회 등 행사 참여(32명, 13.3%)가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이 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인권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실물 홍보물의 효과적인 배포와 함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인권센터 인지 경로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센터 축제 부스, 인권강연회 등 행사 참여	32	13.3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9	24.5
홍보물(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66	27.4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	84	34.9
전체	241	100.0

2)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센터 인지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대, 학위 과정, 소속 대학에 따른 인권센터 인지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대학원생 전반에 걸쳐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고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인권센터 인지도는 여성(4.07점)이 남성(4.0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F=0.978$, $p>.05$), 연령대별로는 40대(4.45점)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20대(4.02점), 30대(3.95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542$, $p>.05$). 학위 과정별로는 박사과정(4.21점)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4.05점), 석박사 통합과정(3.85점) 순으로 나타났다($F=2.166$, $p>.05$). 소속 대학별로는 경상대학(4.38점)과 첨단융합대학(4.29점), 글로벌문화통상대학

(4.27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약학대학은 3.45점으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843, p>.05*).

종합하면, 조사 대상자들은 소속 대학이나 학위 과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4점 내외의 인권센터 인지도를 보였으며,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학원생 집단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n=218*)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성	91	4.00	0.87	.978	.378
	여성	126	4.07	0.80		
	기타	1	3.00			
연령대	20대	188	4.02	0.81	1.542	.216
	30대	19	3.95	1.03		
	40대	11	4.45			
학위과정	석사과정	129	4.05	0.77	2.166	.117
	박사과정	42	4.21	0.87		
	석박통합과정	47	3.85			
소속	공학대학	92	3.92	0.83	1.843	.06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5	4.20	0.68		
	약학대학	11	3.45	0.82		
	첨단융합대학	17	4.29	0.69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6	4.27	0.96		
	커뮤니케이션&컬쳐대학	19	3.89	0.88		
	경상대학	21	4.38	0.74		
	디자인대학	12	3.92	0.67		
	예체능대학	4	4.25	0.96		
	기타	1	4.00	0.00		

$^{*}p<.05$, $^{**}p<.01$, $^{***}p<.001$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3)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학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인권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가 125명(2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가 114

명(19.8%),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가 109명(18.9%), '인권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가 94명(16.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 72명(12.5%),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63명, 10.9%)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생들이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실태조사, 문화행사, 정보 제공 등 예방 및 인식개선 기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권센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인권센터 인지도 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인권센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권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권교육·문화행사·실태조사 등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125	21.7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109	18.9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94	16.3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63	10.9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114	19.8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	72	12.5
전체	577	100.0

제 3 절 성역할 고정관념

1)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본 조사에서는 성역할 태도(성역할 고정관념)를 측정하기 위해서 Kalin과 Tilby(1978)가 개발한 The SEX-Role Ideology Scale(SRIS)을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축형 성역할 태도 측정 도구이다. 본 척도는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경향과 성평등 경향 두 가지 차원을 측정할 수 있다. 정윤경(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8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89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표 8〉 성역할 고정관념 신뢰도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내적 합치도 계수
성역할 태도	16	1, 2, 5, 6, 7, 9, 10, 13, 14, 15, 16	.91

	3, 4, 8, 11, 12	.83
전체	16문항	.89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경향성(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태도일수록 남성과 여성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성평등적 태도일수록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내용은 가정 내에서의 남녀 역할, 결혼 후 남녀 역할과 행동, 남자와 여자의 성적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정윤경, 2017).

문항별 평균은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의 전체 평균은 2.60(*SD*=0.98)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성역할 고정관념 평균

	항목	평균
1	남편은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법적 대리인	2.72
2	지역사회에서 부인의 활동들은 남편의 위치를 보완하는 것	2.17
3	결혼한 여성도 남자를 친구로서 자유롭게 사귈 수 있음(R)	3.65
4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R)	2.84
5	여자가 욕하는 것이 남자가 욕하는 것보다 더 불쾌함	2.23
6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때 집안일은 여자의 몫임	1.91
7	남자는 관계를 주도하는 여자를 주의해야 함	2.58
8	결혼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경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R)	2.52
9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주된 책임은 경제적 지원과 규율을 제공하는 것	3.43
10	여자는 남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조심해야 함	2.83
11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함(R)	3.80
12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가 허락되어야 함(R)	2.67
13	남자의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얽매일 수 없음	1.96
14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의 첫 번째 의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	2.61
15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함	1.89
16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남편의 직업을 돕는데 더 신경 써야 함	1.85
	전체	2.60

주) R: 역문항은 역채점(reverse coding)하여 분석함.

또한 성별에 따른 성역할 및 성평등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표 10>에는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족 내 역할 및 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항

1(*F=17.466, p<.001*), 문항2(*F=4.810, p<.01*), 문항10(*F=9.489, p<.001*), 문항14(*F=14.451, p<.001*)등의 문항에서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 분담 및 경제적 책임과 관련된 문항9(*F=6.651, p<.01*), 문항13(*F=14.477, p<.001*), 문항16(*F=11.873, p<.001*)에서도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채점 문항인 문항3(*F=18.380, p<.001*), 문항4(*F=8.827, p<.001*), 문항8(*F=26.795, p<.01*), 문항11(*F=6.794, p<.001*), 문항12(*F=5.487, p<.01*) 문항에서도 남성의 평균점수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 가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10> 성별에 따른 성역할 및 성평등 인식의 차이

구분	성별	표본수	평균(M)	표준편차(*SD*)	*F*	*p*
문항 1	남성	91	3.41	1.54	17.466***	.000
	여성	126	2.23	1.43		
	기타	1	1.00			
문항 2	남성	91	2.52	1.51	4.810**	.009
	여성	126	1.94	1.34		
	기타	1	1.00			
문항 3	남성	91	4.52	1.71	18.380**	.001
	여성	126	3.03	1.93		
	기타	1	1.00			
문항 4	남성	91	3.40	1.65	8.827**	.001
	여성	126	2.44	1.77		
	기타	1	1.00			
문항 5	남성	91	2.59	1.56	4.780**	.009
	여성	126	1.98	1.46		
	기타	1	1.00			
문항 6	남성	91	2.30	1.40	7.075**	.001
	여성	126	1.63	1.22		
	기타	1	1.00			
문항 8	남성	91	4.87	1.66	26.795**	.001
	여성	126	3.05	1.97		
	기타	1	1.00			
문항 9	남성	91	3.87	1.47	6.651**	.002
	여성	126	3.13	1.70		
	기타	1	1.00			
문항 10	남성	91	3.40	1.73	9.489***	.000
	여성	126	2.44	1.60		
	기타	1	1.00			

문항 11	남성	91	3.13	1.66	6.794**	.001
	여성	126	2.35	1.74		
	기타	1	1.00			
문항 12	남성	91	3.05	1.85	5.487**	.005
	여성	126	2.14	1.83		
	기타	1	1.00			
문항 13	남성	91	2.49	1.471	14.477***	.000
	여성	126	1.58	1.061		
	기타	1	1.00			
문항 14	남성	91	3.26	1.482	14.451***	.000
	여성	126	2.14	1.589		
	기타	1	1.00			
문항 15	남성	91	2.36	1.487	10.259***	.000
	여성	126	1.56	1.142		
	기타	1	1.00			
문항 16	남성	91	2.33	1.383	11.873***	.000
	여성	126	1.51	1.122		
	기타	1	1.00			

*p<.05, **p<.01, ***p<.001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제 4 절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성폭력 행위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원(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주요 일탈 행위에 해당하는 12가지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부부 성폭력,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이 내포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0점, '대체로 허용할 수 없다' 1점,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2점,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점의 4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정윤경(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확인되어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표 11〉 성폭력 허용도 신뢰도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내적 합치도 계수
언어적 성폭력	4	1, 2, 3, 4	.86
물리적 성폭력	5	5, 6, 7, 8, 9	.96
정신적 성폭력	3	10, 11, 12	.90
전 체		12문항	.96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은 1.14(SD=0.36)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성희롱·성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허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동'이 1.08점으로 가장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 또한 '연인 간에 여자의 NO를 무시하고 남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09점),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는 행동' (1.09점) 역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폭력 및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 (1.20점),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1.15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는 행동' (1.15점) 등 성희롱 및 스토킹 관련 문항에 대해서도 낮은 허용 수준이 나타났다. 한편 '욕설이나 비방, 거친 언어로 이성을 공격하는 행동'은 1.3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허용도를 나타냈다. 종합하자면 조사대상자들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등 젠더기반 폭력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용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12〉 성폭력 허용도 평균

	항목	평균
1	욕설이나 비방, 거친 언어로 이성을 공격하는 행동	1.32
2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	1.20
3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1.12
4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1.15
5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1.08
6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1.10
7	연인 간에 여자의 "NO"를 무시하고 남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09
8	원치 않는 아내에게 남편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1.13
9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는 행동	1.09
10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며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행동	1.15
11	상대가 싫다는 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1.13
12	헤어지기 원하는 상대에게 만나주지 않거나 헤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행동	1.11
	전체	1.14

제 5 절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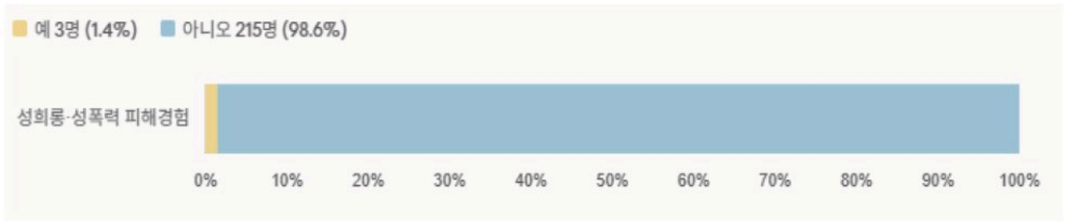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유형, 발생 장소, 가해자의 특성, 피해 발생 시 대처방식, 도움이 되었던 지원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학 대학원생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유무

조사 대상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6].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218명 중 3명(1.4%)이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5명(98.6%)은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3(1.4)	215(98.6)	218(100)



〈그림 1〉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비록 피해 경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학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응답자 3명은 모두 외국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사례 수가 적어 이를 외국인 유학생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

조사 대상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후 조사를

6) 부록 설문지 part c.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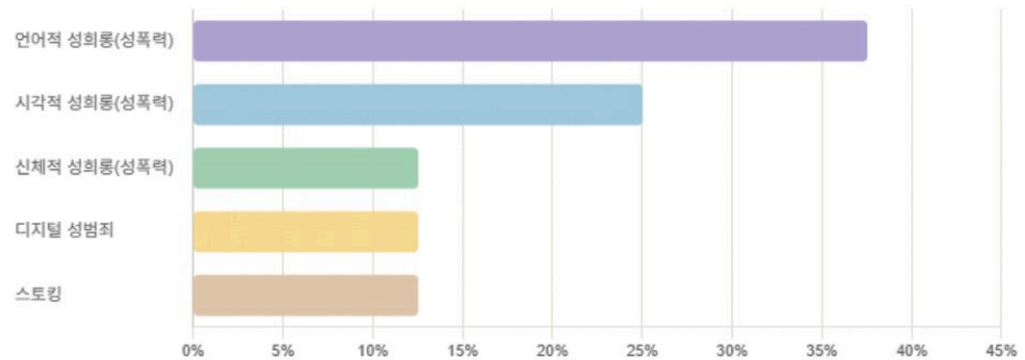
실시하였다[7]. 조사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한 가지 유형의 피해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복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 경험자 전원이 해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전체 유형의 37.5%를 차지하였다. 이어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은 2명(25.0%), 신체적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은 각각 1명(12.5%)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교에서 실시한 2023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성폭력) 경험(5.5%)과 스토킹 경험(3.0%)이 보고된 바 있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비록 본 조사결과는 응답자 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언어적 성희롱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시각적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든 피해 사례에서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대학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14〉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3	37.5
신체적 성희롱(성폭력)	1	12.5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2	25.0
디지털 성범죄	1	12.5
스토킹	1	12.5
전체	8	100.0



〈그림 2〉 성희롱・성폭력 피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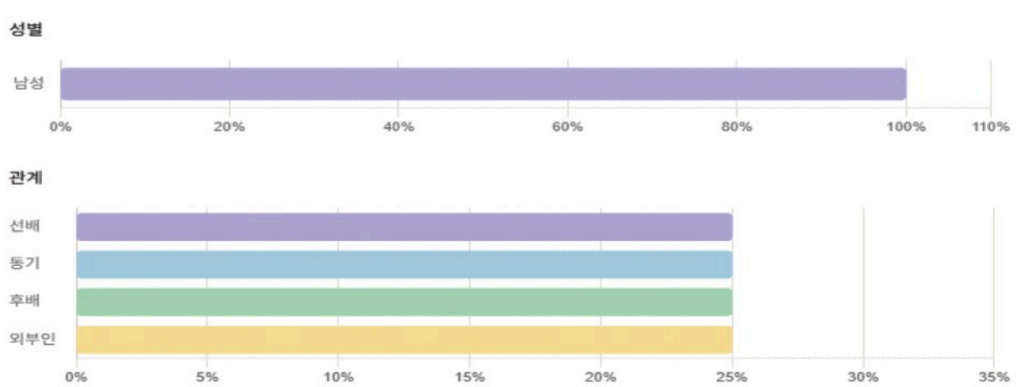
7) 부록 설문지 part c.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3명, 100%)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선배, 동기, 후배 및 외부인이 각각 1건(25%)씩 보고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피해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내 구성원에 의한 피해의 경우 선배, 동기, 후배 등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가 3건(75%)으로 나타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교수-학생 관계뿐 아니라 학생 상호 간 관계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	100.0
	여성	0	0.0
	잘 모름	0	0.0
	전체	3	100.0
관계	선배	1	25.0
	동기	1	25.0
	후배	1	25.0
	외부인	1	25.0
	전체	4	100.0



<그림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특성

4)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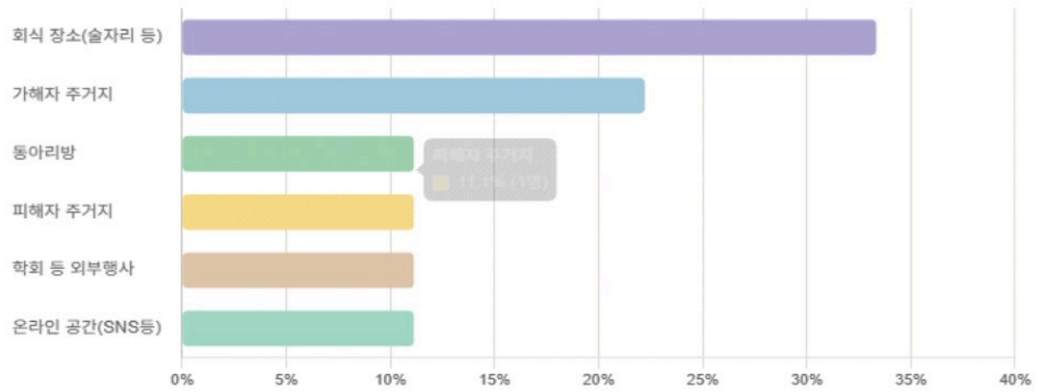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학내 시설뿐 아니라 사적 공간, 외부 행사 및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이 보고된 장소는 회식 장소(술자리 등)로 3건(33.3%)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피해가 2건(22.2%)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방, 피해자 주거지, 학회 등 외부 행사, 온라인 공간(SNS 등)에서 각각 1건(11.1%)씩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본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강의실이나 연구실과 같은 공식적인 대학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회식장소, 가・피해자 주거지, 학회 및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 공간과 외부 행사에서의 피해 사례가 확인된 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교내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 환경 및 교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6> 성희롱・성폭력 발생 장소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동아리방	1	11.1
피해자 주거지	1	11.1
가해자 주거지	2	22.2
회식 장소(술자리 등)	3	33.3
학회 등 외부행사	1	11.1
온라인 공간(SNS등)	1	11.1
전체	9	100.0



<그림 4> 성희롱・성폭력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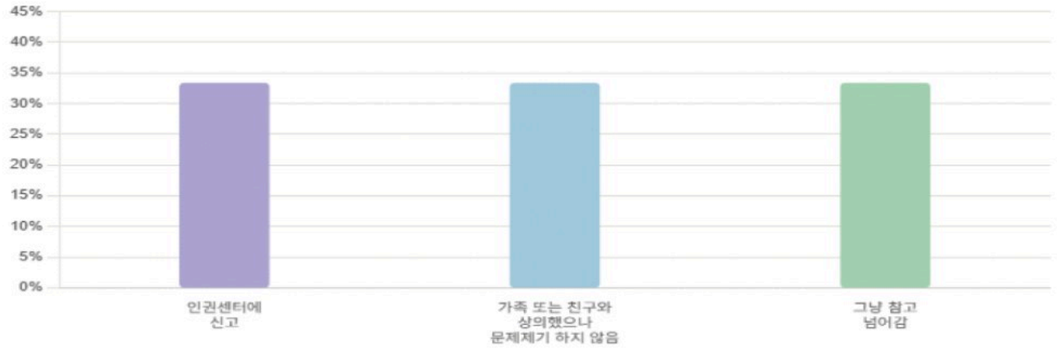
5) 성희롱・성폭력 피해발생 시 대응방식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물은 결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경우(인권센터에 신고)가 1건(33.3%)으로 나타났고 가족 및 친구와 상의했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과 전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2건(66.6%)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경험자 중 일부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용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피해발생시 적극적 도움요청보다는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처란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과 개인의 능력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하는 노력으로,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후유증을 보이거나 삶에 적응하게 된다.[8]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방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9] 회피 또는 비표현적 대처양식이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0] 반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 인지적 대처를 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적응이 더 높았다[11]. 이는 성폭력 피해를 이해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피해자는 보다 적은 심리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자기비난적 귀인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다.[12]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피해자가 자기비난을 멈추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요청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지원 등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7〉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센터에 신고	1	33.3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1	33.3
그냥 참고 넘어감	1	33.3
전체	3	100.0



〈그림 5〉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식

8) Burt, M. R., & Katz, B. L.,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528(1), 1988.
9) Sarah E. Ullman & Henrietta H. Filipas & Stephanie M. Townsend & Laura L. Starzynski, "Psychosocial correlates of PTSD symptom severity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0(5), 2007.
10) 권해수,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1) 권해수, 위의 논문
12) Kerstin Wenninger & Anke Ehlers,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adul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1(2), 1998.

6) 피해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 전원(3명, 100%)이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후에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설명될 수 있다.[13] 다양한 외상 사건 중 성폭력 피해자들이 PTSD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4] 이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 일반집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다른 외상 경험과 달리 만성적이고 장기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16] PTSD 증상만이 아니라 수치심, 분노, 공포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도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성희롱・성폭력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명(%))

구분	빈도(명)	비율(%)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3	100

7) 피해회복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이후 회복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1순위 지원으로는 정당한 처벌, 피해자 보호(가해자와 분리 등), 상담・심리 지원이 각각 1건(33.3%)씩 보고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순위 지원으로는 응답자 전원(3명, 100%)이 정당한 처벌을 선택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건해결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와 공정한 사건처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피해자 보호, 심리・정서적 지원, 공정한 사건 처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 내 인권

13) Yank D. Coble & A. Bradley Eisenbrey & E. Harvey Estes & et al., "Violence against women: Relevance for medical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67(23), 1992.
14) Norris, F. H.,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0(3), 1992.
15) 2011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보고서
16) Bifulco, A. & Brown, G. W. & Adler, Z., "Earlysexual abuse and clinical depression in adult lif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59(1), 1991.

기구는 피해자 보호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 지원 (단위: 명(%))

순위	정당한 처벌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 분리 등)	상담·심리 지원	전체
1순위	1(33.3)	1(33.3)	1(33.3)	3(100)
2순위	3(100)	0	0	3(100)

제 6 절 인권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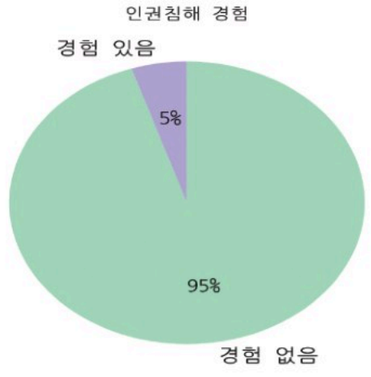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인권침해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유형, 발생 장소, 가해자 특성 및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식을 조사하였다.

1) 인권침해 경험 유무

본 문항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인권침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한 후 피해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18명 중 11명(5.0%)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7명(95.0%)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인권침해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인권침해 경험	11(5.0)	207(95.0)	218(100.0)



〈그림 6〉 인권침해 경험유무

2)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인권침해 경험 유무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여성 7명(63.6%), 남성 4명(36.4%)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χ^2 *=0.202, p>.05*). 연령대별로는 20대가 9명(81.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가 2명(18.2%)으로 나타났다(χ^2 *=1.802, p>.05*).

학위 과정별로는 석사과정이 7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석박사통합과정 3명(27.3%), 박사과정 1명(9.1%) 순으로 확인되었다(χ^2 *=0.699, p>.05*). 소속 대학별로는 공학대학이 6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명(18.2%), 첨단융합대학·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경상대학이 각각 1명(9.1%)으로 나타났다(χ^2 *=3.114, p>.05*). 국적별로는 한국인 응답자가 8명(72.7%), 중국인 응답자가 3명(27.3%)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χ^2 *=0.675, p>.05*).

종합하면 인권침해 경험자는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빈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 학위 과정, 소속 대학 및 국적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인권침해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원생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χ^2	*p*
성별 (*n=218*)	남성	4(36.4)	87(42.0)	91(41.7)	.202	.904
	여성	7(63.6)	119(57.5)	126(57.8)		
	기타	0(0.0)	1(0.5)	1(0.5)		
	합계	11(100)	207(100)	218(100)		
연령대 (*n=218*)	20대	9(81.8)	179(86.5)	188(86.2)	1.802	.772
	30대	2(18.2)	17(8.2)	19(8.7)		
	40대	0(0.0)	8(3.9)	8(3.7)		
	50대	0(0.0)	1(0.5)	1(0.5)		
	60대	0(0.0)	2(1.0)	2(0.9)		
	합계	11(100)	207(100)	218(100)		
과정 (*n=218*)	석사과정	7(63.6)	122(58.9)	129(59.2)	.699	.705
	박사과정	1(9.1)	39(18.8)	42(18.3)		
	석박통합과정	3(27.3)	46(22.2)	49(22.5)		
	합계	11(100)	207(100)	218(100)		
소속 (*n=218*)	공학대학	6(54.5)	86(41.5)	92(42.2)	3.114	.96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0.0)	15(7.2)	15(6.9)		
	약학대학	0(0.0)	11(5.3)	11(5.0)		

	첨단융합대학	1(9.1)	16(7.7)	17(7.8)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18.2)	24(11.6)	26(11.9)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	1(9.1)	18(8.7)	19(8.7)		
	경상대학	1(9.1)	20(9.7)	21(9.6)		
	디자인대학	0(0.0)	12(5.8)	12(5.5)		
	예체능대학	0(0.0)	4(1.9)	4(1.8)		
	기타	0(0.0)	1(0.5)	1(0.5)		
	합계	11(100)	207(100)	218(100)		
국적 (*n=218*)	한국	8(72.7)	142(68.6)	150(68.8)		
	중국	3(27.3)	53(25.6)	56(25.7)		
	대만	0(0.0)	1(0.5)	1(0.5)		
	베트남	0(0.0)	5(2.4)	5(2.3)		
	인도네시아	0(0.0)	2(1.0)	2(0.9)	.675	.999
	인도	0(0.0)	2(1.0)	2(0.9)		
	태국	0(0.0)	1(0.5)	1(0.5)		
	콜롬비아	0(0.0)	1(0.5)	1(0.5)		
	합계	11(100)	207(100)	218(100)		

$^{*}p<.05$, $^{**}p<.01$, $^{***}p<.001$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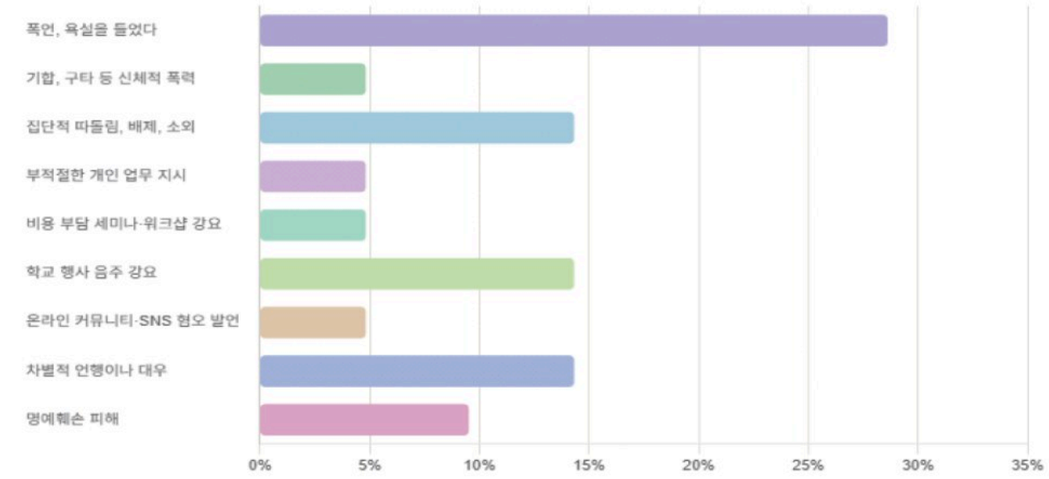
3) 인권침해의 유형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폭언, 욕설을 들었다' 는 응답이 6명(2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적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 행사나 모임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는 응답이 각각 3명(14.3%)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는 응답은 2명(9.5%)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기합,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 '부적절한 개인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샵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 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는 응답이 각각 1명(4.8%)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권침해는 폭언·욕설과 같은 언어적 침해뿐만 아니라 관계적 배제, 차별적 언행, 음주 강요,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상적인 학업 및 대학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 인권침해의 유형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폭언, 욕설을 들었다	6	28.6
기합,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1	4.8
집단적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3	14.3
부적절한 개인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1	4.8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샵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 받은 적이 있다	1	4.8
학교 행사나 모임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3	14.3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1	4.8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3	14.3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2	9.5
전체	21	100.0



<그림 7> 인권침해 유형

4) 인권침해 가해자의 특성

인권침해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8건(61.5%), 여성이 5건(38.5%)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선배)이 6건(4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교수, 학생(동기)이 각각 3건(20.0%), 학생(후배) 2건(13.3%), 강사 1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교수, 강사 및 학생(선배)에 의한 사례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여 인권침해가 대학원 내 위계적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선배·동기·후배)간 발생사례가 전체의 73.3%를 차지하여 인권침해가 교수-학생 관계뿐 아니라 대학원생 간의 일상적인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인권침해 예방정책은 교수-학생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 상호작용과 대학원 공동체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23〉 인권침해 가해자 특성 (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성별	남성	8	61.5
	여성	5	38.5
	기타	0	0.0
관계	교수	3	20.0
	강사	1	6.7
	학생(선배)	6	40.0
	학생(동기)	3	20.0
	학생(후배)	2	13.3
	전체	15	100.0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그림 8〉 인권침해 가해자 특성

5) 인권침해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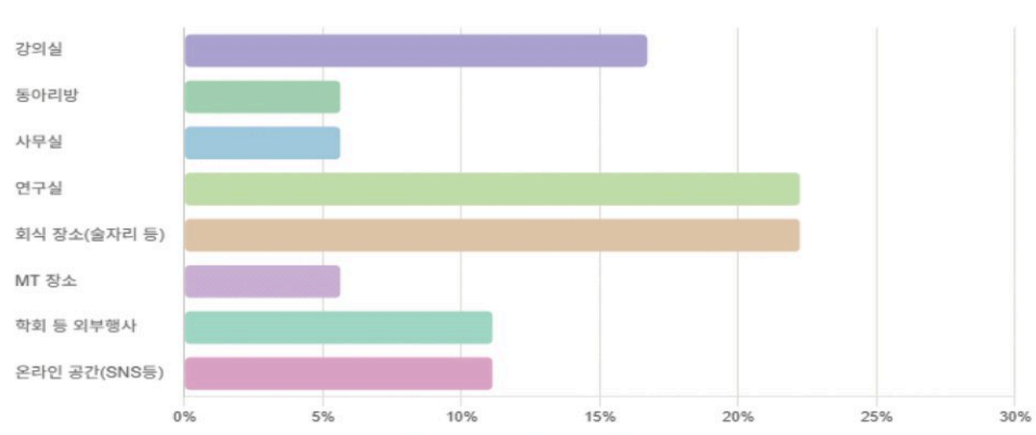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연구실과 회식 장소(술자리 등)가 각각 4건(22.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이어 학회 등 외부 행사와 온라인 공간(SNS 등)이 각각 2건(11.1%)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방, 사무실, MT 장소는 각각 1건(5.6%)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인권침해는 연구실과 같은 공식적인 학업 및 연구 공간뿐만 아니라 회식, 학회, MT 등 비공식적인 활동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어 인권침해가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는 연구실과 강의실 등 교내 공식 공간뿐만 아니라 회식, 학회, MT 등 교외 활동과 온라인 공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4〉 인권침해 발생 장소 (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강의실	3	16.7
동아리방	1	5.6
사무실	1	5.6
연구실	4	22.2
회식 장소(술자리 등)	4	22.2
MT 장소	1	5.6
학회 등 외부행사	2	11.1
온라인 공간(SNS등)	2	11.1
전체	18	100.0



〈그림 9〉 인권침해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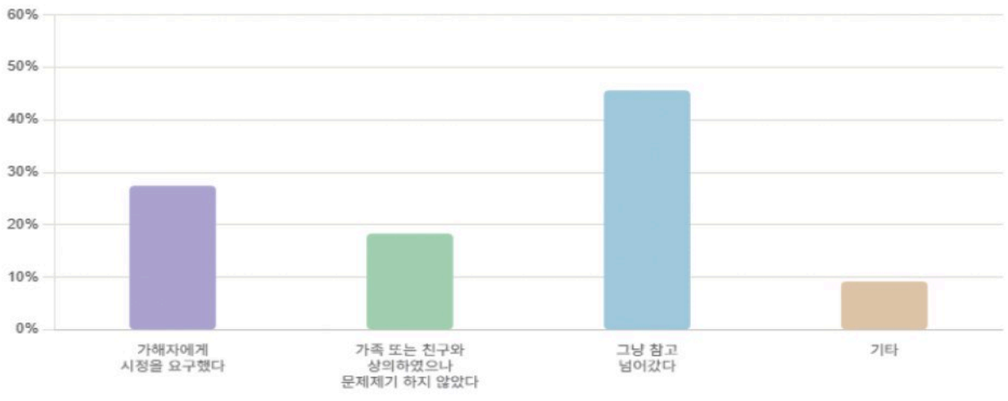
6)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인권침해 발생시 대응방식을 분석한 결과 '그냥 참고 넘어갔다' 는 응답이 5명(4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는 3명(27.3%),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가 2명(18.2%)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그냥 참고 넘어갔다’와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3.7%(7명)를 차지하여, 인권침해 발생 시 공식적인 신고나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감내하거나 주변인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 실시한 2023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어, 피해발생 이후 적극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신고 나 상담 등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5>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3	27.3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2	18.2
그냥 참고 넘어갔다	5	45.5
기타	1	9.1
전체	11	100.0



<그림 10>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문제제기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명(5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되어서’가 2명(28.6%),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는 1명(14.3%)으로 확인되었다. 본교에서 실시한 2023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에서도 ‘학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와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이 어

려울 것 같아서)’가 주요 사유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피해자 보호조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인권침해 발생 시 소극적 대응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되어서	2	28.6
문제제기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	57.1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	14.3
전체	7	100.0

7) 인권침해 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인권침해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분석한 결과,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6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 좋은 시선 등)’과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각각 2명(18.2%)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1명(9.1%)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인권침해는 대학원생의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응답자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권침해가 개인의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과 대학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은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심리상담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7> 인권침해 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구분	빈도(명)	비율(%)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좋은 시선 등)	2	18.2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2	18.2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6	54.5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1	9.1
전체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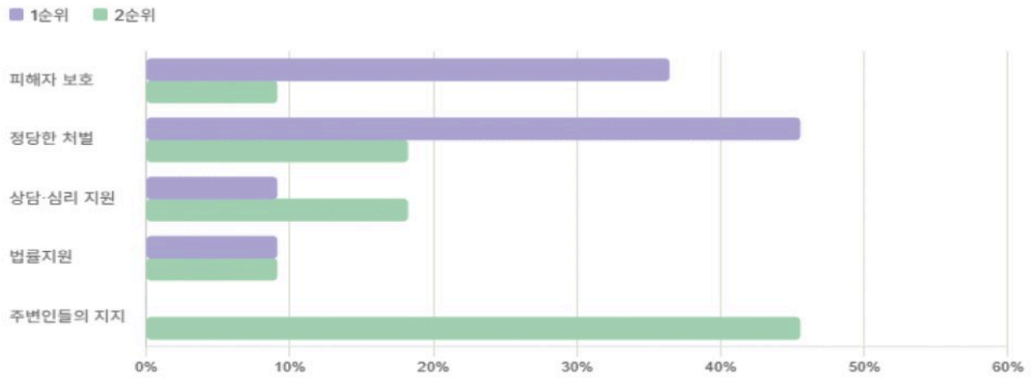
8)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인권침해 경험 이후 피해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지원으로는 '정당한 처벌'이 5명(4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피해자 보호(가해자와 분리 등)'가 4명(36.4%)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심리 지원'과 '법률 지원'은 각각 1명(9.1%)으로 확인되었다. 2순위 지원에서는 '주변인들의 지지'가 5명(4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당한 처벌', '상담·심리 지원'이 각각 2명(18.2%), '법률 지원'이 1명(9.1%)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복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인의 지지가 주요한 회복 자원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사건 처리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건 처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 상담 및 심리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8> 인권침해 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단위: 명(%))

구분	피해자 보호	정당한 처벌	상담·심리 지원	법률지원	주변인들의 지지	전체
1 순위	4(36.4)	5(45.5)	1(9.1)	1(9.1)	0(0)	11(100)
2 순위	1(9.1)	2(18.2)	2(18.2)	1(9.1)	5(45.5)	11(100)



<그림 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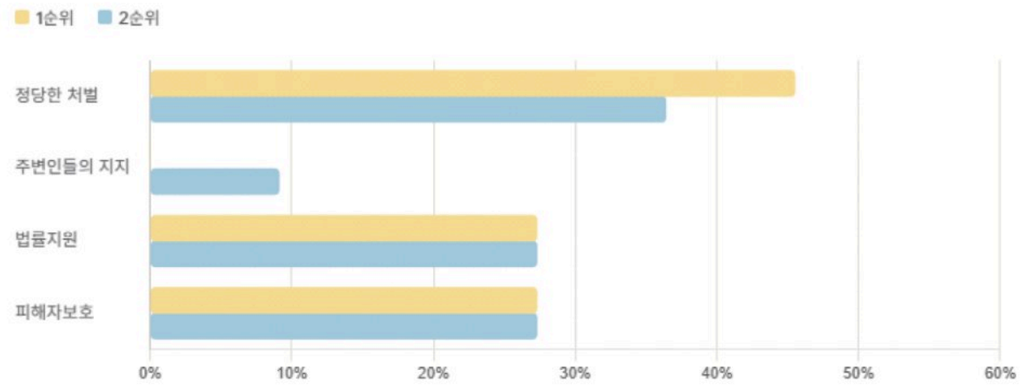
9)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한 점

인권침해 사건 처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정당한 처벌'이 5명(4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률지원'이 각각 3명(27.3%)로 확인되었다. 2순위 응답에서도 '정당한 처벌'이 4명(36.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법률 지원'과 '피해자 보호'가 각각 3명(27.3%)으로 나타났다. '주변인들의 지지'는 1명(9.1%)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 지원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공정한 사건 처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9>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단위: 명(%))

구분	정당한 처벌	주변인들의 지지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전체
1순위	5(45.5)	0(0.0)	3(27.3)	3(27.3)	11(100)
2순위	4(36.4)	1(9.1)	3(27.3)	3(27.3)	11(100)



<그림 1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제 7 절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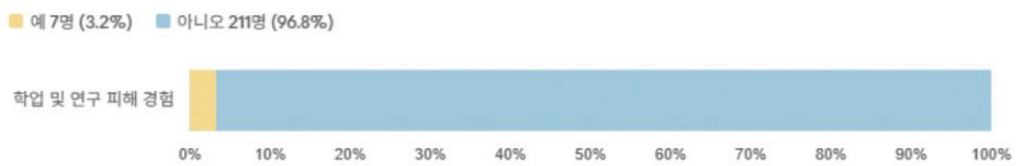
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조사 대상자들의 학업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피해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218명 중 7명(3.2%)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1명(96.8%)은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해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높지 않았으나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연구활동의 지속성, 학업 성취 및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발생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최근 연구실 내 인권과 연구윤리, 대학원생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0〉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합계
학업 및 연구와 관련한 피해 경험	7(3.2)	211(96.8)	218(100)



〈그림 13〉 학업 및 연구피해 경험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 경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χ^2)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대, 학위 과정, 소속 및 국적 등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명 중 여성은 5명(71.4%), 남성은 2명(28.6%)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명(8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위 과정별로는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이 각각 3명(42.9%), 박사과정이 1명(14.3%)으로 나타났다. 소속 대학별로는 공학대학이 4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명(28.6%), 첨단융합대학 1명(14.3%)순으로 확인되었다. 국적별로는 피해 경험을 보고한 응답자 모두가 한국인(7명, 10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는 성별, 연령, 학위과정, 소속 및 국적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아 본 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에 더 취약하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피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접근보다는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환경 개선과 예방교육,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χ^2	p
성별 *(n=218)*	남성	2(28.6)	89(42.2)	91(41.7)	.566	.753
	여성	5(71.4)	121(57.3)	126(57.8)		
	기타	0(0.0)	1(0.5)	1(0.5)		
	합계	7(100)	211(100)	218(100)		
연령대 *(n=218)*	20대	6(85.7)	182(86.3)	188(86.2)	.623	.961
	30대	1(14.3)	18(8.5)	19(8.7)		
	40대	0(0.0)	8(3.8)	8(3.7)		
	50대	0(0.0)	1(0.5)	1(0.5)		
	60대	0(0.0)	2(0.9)	2(0.9)		
	합계	7(100)	211(100)	218(100)		
과정 *(n=218)*	석사과정	3(42.9)	126(59.7)	129(59.2)	1.727	.422
	박사과정	1(14.3)	39(18.5)	40(18.3)		
	석박통합과정	3(42.9)	46(21.8)	49(22.5)		
	합계	7(100)	211(100)	218(100)		
소속 *(n=218)*	공학대학	4(57.1)	88(41.7)	92(42.2)	5.206	.816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0.0)	15(7.1)	15(6.9)		
	약학대학	0(0.0)	11(5.2)	11(5.0)		
	첨단융합대학	1(14.3)	16(7.6)	17(7.8)		
	글로벌문화통상대학	2(28.6)	24(11.4)	26(11.9)		
	커뮤니케이션&컬처대학	0(0.0)	19(9.0)	19(8.7)		
	경상대학	0(0.0)	21(10.0)	21(9.6)		
	디자인대학	0(0.0)	12(5.7)	12(5.5)		
	예체능대학	0(0.0)	4(1.9)	4(1.8)		
	기타	0(0.0)	1(0.5)	1(0.5)		
	합계	7(100)	211(100)	218(100)		
국적 *(n=218)*	한국	7(100)	143(67.8)	150(68.8)	3.279	.858
	중국	0(0.0)	56(26.5)	56(25.7)		
	대만	0(0.0)	1(0.5)	1(0.5)		
	베트남	0(0.0)	5(2.4)	5(2.3)		
	인도네시아	0(0.0)	2(0.9)	2(0.9)		
	인도	0(0.0)	2(0.9)	2(0.9)		
	태국	0(0.0)	1(0.5)	1(0.5)		
	콜롬비아	0(0.0)	1(0.5)	1(0.5)		
	합계	7(100)	211(100)	218(1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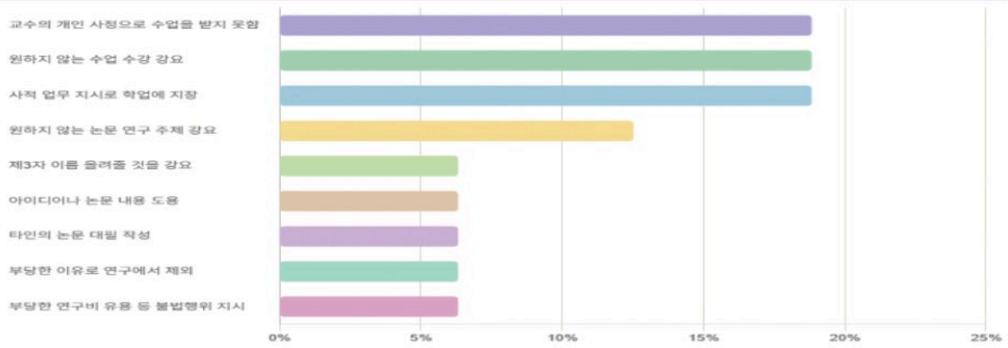
주) 성별: 기타 응답 1명은 본인의 성별을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응답함.

2) 학업 및 연구 피해의 유형

학업 및 연구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받지 못함',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함', '사적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음' 이 각각 3명(18.8%)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하지 않는 논문 연구 주제를 강요함' 이 2명(12.5%)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지에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제3자의 이름을 저자로 올릴 것을 강요', '아이디어나 논문 내용 도용당함', 타인의 논문 또는 연구의 전체 혹은 일부를 대신 작성함', '부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됨 ',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 지시받음' 이 각각 1명(6.3%)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수업 운영과 관련된 학업권 침해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강요, 연구성과 도용, 부당한 저자 표시 요구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침해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과 같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대학원생의 학습권과 연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와 연구윤리 교육,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 학업 및 연구 피해의 유형 (복수 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함	3	18.8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함	3	18.8
사적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음	3	18.8
원하지 않는 논문 연구 주제를 선택 강요함	2	12.5
학술지에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	1	6.3
아이디어나 논문(레포트)내용을 도용	1	6.3
타인의 논문, 연구수행의 전체(일부)를 대신(예, 논문대필) 작성함	1	6.3
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됨	1	6.3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지시받음	1	6.3
전체	1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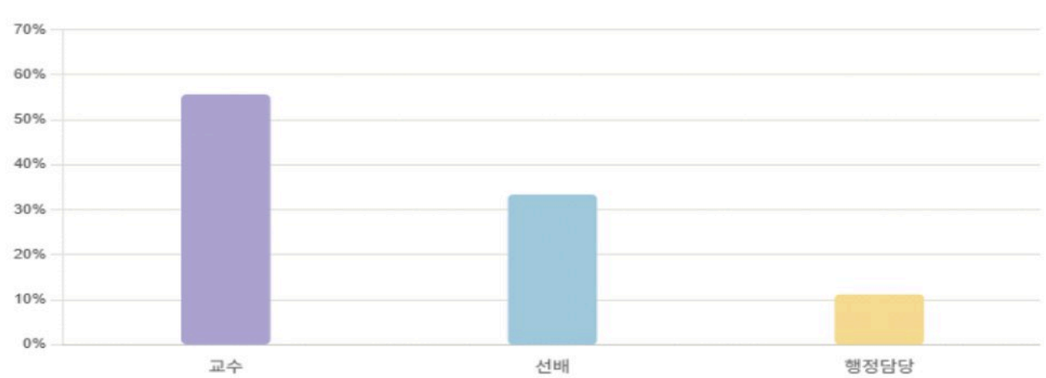
<그림 14> 학업 및 연구피해 유형

3) 학업 및 연구피해 가해자의 특성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가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수가 5명(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선배가 3명(33.3%), 행정 담당자가 1명(11.1%)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주로 지도 교수와 선배 등 대학원 내 위계적 관계에서 경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수와 선배가 전체 가해자의 88.9%를 차지한 점은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환경에서 권력관계와 위계구조가 피해발생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와 대학원생, 선·후배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위계적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과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3> 학업 및 연구 피해 가해자 (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교수	5	55.6
선배	3	33.3
행정담당	1	11.1
전체	9	100.0



<그림 15> 학업 및 연구피해 가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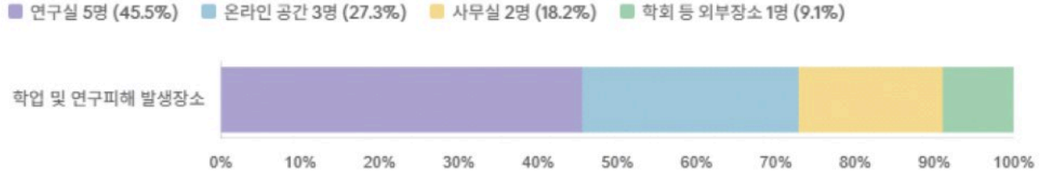
4)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 장소

학업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경험한 피해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결과 '연구실' 이 5건(4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온라인 공간(SNS 등)' 이 3건(27.3%)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실' 2건(18.2%), '학회 등 외부 장소' 1건(9.1%) 순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확인된 가해자

의 특성(교수 및 선배)과 함께 살펴보면, 연구실은 대학원생이 학업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실 내 권력관계와 위계적 상호작용 속에서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은 학업 및 연구활동이 대면 환경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통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은 연구실내 상호존중 문화와 연구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장소 (복수 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연구실	5	45.5
사무실	2	18.2
학회 등 외부장소	1	9.1
온라인 공간(SNS 등)	3	27.3
전체	11	100.0



<그림 16>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장소

5) 피해 발생 시 대응방식

학업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5명(71.4%)이 '그냥 참고 넘어감'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했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이 2명(28.6%)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전원(100.0%)이 공식적인 신고나 구제 절차를 이용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연구 환경에서 형성되는 권력관계와 위계적 관계가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교수나 선배와의 관계는 연구 참여, 논문 지도, 학위 취득 및 향후 진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5> 학업 및 연구 피해 발생 시 대응방식

구분	빈도(명)	비율(%)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했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2	28.6
그냥 참고 넘어감	5	71.4
전체	7	100.0

학업 및 연구 피해 발생 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후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연구 참여 기회 제한, 논문 심사 불이익, 졸업 지연 등),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심각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문제를 제기해도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각각 2명(2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 및 연구피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라는 응답도 1명(14.3%)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내 권력관계와 위계구조, 사건 처리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36> 학업 및 연구 피해 발생 시 소극적 대응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연구참여 및 논문심사 불이익, 졸업 연기 등)	2	28.6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심각한 건이 아니라도 생각되어서	2	28.6
학업 및 연구피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1	14.3
문제를 제기해도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2	28.6
전체	7	100.0

제 8 절 인권교육

1) 인권교육 경험

본 문항은 지난 1년간 폭력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수강 경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폭력예방교육 혹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명(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생의 인권

교육 참여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온라인 인권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인권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만 교육 이수율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인권 의식이 실제 대학생활과 연구환경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7> 인권교육 경험 (복수응답)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인권교육 경험	폭력예방교육	167	44.3
	인권교육	207	54.9
	교육 경험 없음	3	0.8
전체		377	100.0

2) 인권 교육 장소

인권교육을 경험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응답자가 194명(9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외부 기관의 온라인 교육' 13명(6.0%), '학교에서 진행한 대면 교육' 5명(2.3%), '외부 기관의 대면 교육' 3명(1.4%)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라인 교육이 학내 인권교육의 주요 전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대면 교육과 외부 기관 교육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례 중심의 참여형 대면 교육과 특강,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8> 인권교육 장소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 교육	194	90.2
학교에서 진행한 대면 교육	5	2.3
외부 기관의 온라인 교육	13	6.0
외부 기관의 대면 교육	3	1.4
전체	2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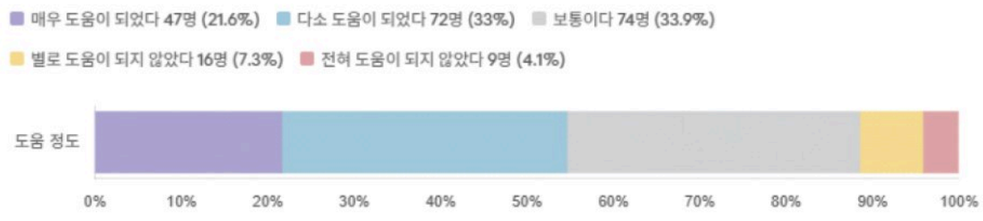
3) 인권교육 도움 정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교육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명(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7명(21.6%)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54.6%(119명)가 인권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5명(11.4%)이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4명(33.9%)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영 중인 인권교육이 대학원생에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통' 이하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45.3%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환경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 인권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도움 정도	9(4.1)	16(7.3)	74(33.9)	72(33)	47(21.6)	218(100)



<그림 17> 인권교육 도움 정도

4) 인권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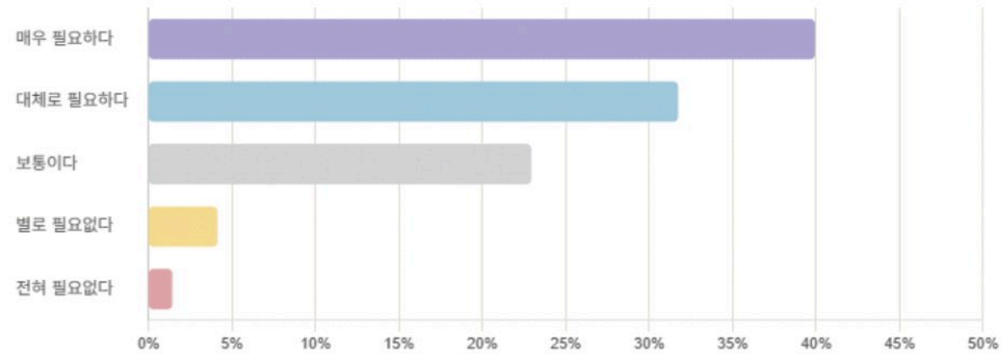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7명(3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69명(31.7%)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1.6%(156명)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50명(22.9%)이었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2명(5.5%)에 불과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대학원생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학내 인권 문제의 예방과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은 현재의 교육 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교육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0> 인권교육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교육 필요성	3(1.4)	9(4.1)	50(22.9)	69(31.7)	87(39.9)	218(100)



<그림 18> 인권교육 필요성

5) 학내 인권 존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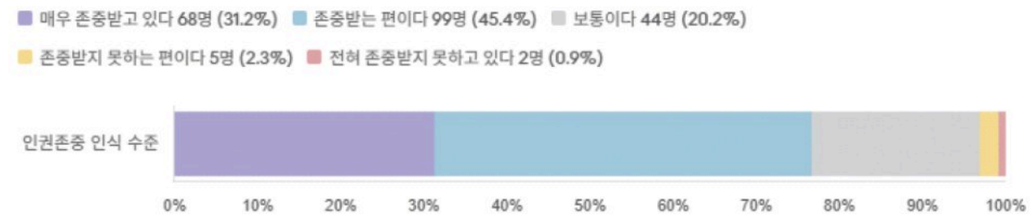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ERICA 대학원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존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존중받는 편이다' 라는 응답이 99명(4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존중받고 있다' 는 응답이 68명(31.2%)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6%(167명)가 학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은 44명(20.2%)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또는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7명(3.2%)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본교에서 실시한 2023년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17]에서는 '매우 존중받고 있다' 와 '존중받는 편이다' 의 응답비율이 74.9%로 나타난 바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76.6%로 확인되어 대학원생이 체감하는 인권 존중 수준이 전반적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학내 인권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응답자는 여전히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

17) 한양대학교, 「2023년도 한양대 ERICA 캠퍼스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23.

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현재의 인권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의 경험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 인권 존중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고 있다	전체
인권존중 인식 수준	2(0.9)	5(2.3)	44(20.2)	99(45.4)	68(31.2)	218(100)



<그림 19> 인권존중 수준

제 9 절 자유 응답 내용

1) 인권존중 대학원 문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인권존중 대학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자유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피해자 보호 및 신고체계 강화, 상담 및 심리지원 확대, 인권존중 문화 확산, 제도 및 복지 지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

첫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되었다. 특히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환류하여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인권교육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인권교육 활성화, 대학원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인권 강연 및 행사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일부는 성인지 교육의 필수교양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은 인권센터와 인권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예방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피해자 보호와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은 신

고자 신변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교수나 선배등 위계적 관계에서도 부담없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상담 및 심리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원생이 교내 상담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 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응답자들은 인권존중이 제도 운영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정착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여섯째, 대학원생의 복지와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확인되었다. 대학원생 출퇴근시간 탄력 운영, 생활비 지원 등 연구와 학업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인권센터의 직접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응답자들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의 적용과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인권 및 연구윤리 교육 강화,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투명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며 보다 포용적인 대학원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에 대한 자유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학원 생활과 연구환경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요 의견은 대학원 연구환경 및 위계관계, 폭력 및 괴롭힘 예방,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디지털 인권, 인권침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방식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원 연구환경과 위계관계에 대한 교육 요구가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대학원생 인권, 연구실 내 갑질 예방, 지도교수-학생 관계, 연구원의 권리, 선·후배 간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실 내 건강한 경계 설정과 부당한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방법 등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둘째, 폭력 및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학업 관련 괴롭힘, 기숙사 내 괴롭힘,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생 간 발생하는 미묘한 언어적 괴롭힘과 관계적 갈등에

대한 예방교육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셋째, 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양성평등, 성평등, 여성 인권 존중, 젠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일부 응답자는 고연령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 요구도 확인되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사이버 폭력, 디지털 괴롭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용 등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상담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교육 운영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명 강사 초청 특강, 참여형 캠페인, 접근성이 높은 홍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교육 수준에 만족하거나 현행 교육체계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의견도 일부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인권 개념 교육보다 대학원 연구환경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계관계, 괴롭힘, 디지털 인권, 성평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이고 사례 기반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권센터 개선에 대한 의견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홍보 및 접근성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외국인 학생 지원 확대, 교육 및 인식개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인권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다수 확인되었다.

첫째, 인권센터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응답자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홍보 행사,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식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둘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창구 운영, 신속한 사건 대응, 상담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신고자 신원 보호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갈등 조정과 법률·정신건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인 학생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부 외국인 학생들은 인권침해 상황을 문화적 차이로 오인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과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피해 대응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예방교육의 지속성과 실효성 제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여성 인권 존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센터 운영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응답자들은 성별이나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접근과 공정한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 교수와 학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인권센터의 운영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다수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인권센터의 행사와 홍보 활동,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인권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접근성 향상, 외국인 학생 지원 확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건 처리체계 구축 등을 향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결론

본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현황, 인권침해 경험,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대학원생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대학원 문화를 조성을 위한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인권교육 참여율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다수가 학내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구실과 교수·선배 등 위계적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참고 넘어가거나 주변인에게만 상의하는 소극적인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와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 인권교육 및 인권센터에 대한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조사 대상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분석한 결과 전체평균은 2.60(*SD=0.98*)으로 전반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고 성평등 의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성평등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허용도의 전체평균은 1.14(*SD*=0.36)로 매우 낮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 218명 중 3명(1.4%)으로 나타났으며, 사례 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 경험자들은 언어적 성희롱뿐 아니라 시각적·신체적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교내 사례의 경우 선배, 동기, 후배 등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피해발생 장소는 회식장소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 학회 등 외부 행사,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발생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상의하거나 참고 넘어 가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 경험자 전원이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개인의 정신건강과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 피해자 보호, 상담·심리 지원이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사건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인권침해

본 조사에서 인권침해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18명 중 11명(5.0%)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위과정, 소속, 국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권침해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대학원생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욕설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집단 따돌림, 음주 강요, 차별적 언행,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또한 가해자는 교수와 선배 등 대학원 내 위계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 간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발생 장소는 연구실과 회식 장소가 가장 많았고, 학회 등 외부행사와 온라인 공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여 인권침해가 공식적인 학습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발생 이후에는 공식적 문제제기 보다 참고 넘어가거나 가족·친구에게만 상의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이유로는 사건 처리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과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주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는 학업 집중의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 회복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심리지원과 법률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는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학업 및 연구

본 조사에서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218명 중 7명(3.2%)이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학위 과정, 소속 대학 및 국적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학업 및 연구 관련 피해가 특정 집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대학원생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강신청 후 수업 미운영, 원하지 않는 수업 수강 강요, 사적 업무 지시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연구주제 강요, 연구성과 도용, 부당한 저자 표시 요구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원생의 학업권뿐 아니라 연구권과 연구윤리까지 포괄하는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해자는 주로 교수와 선배로 나타났으며, 피해는 연구실을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과 사무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대학원 연구환경에서 형성되는 권력관계와 위계구조가 피해 발생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연구실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전원이 공식적인 신고나 문제 제기 대신 참고 넘어가거나 가족·친구에게만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로는 연구 참여 기회 제한, 논문 심사 및 졸업 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원생이 안심하고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와 권리침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인권교육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폭력예방교육 혹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생의 인권교육 참여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경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이 학내 인권교육의 주요 전달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6%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71.6%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학원생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대학원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에는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원 연구환경을 반영한 사례중심 교육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학내 인권 존중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6%가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원생들이 학내 인권환경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응답자는 여전히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제언

앞서 살펴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의 특성과 연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권침해와 학업 연구 관련 피해는 주로 교수자와 선배 등 연구실 내 위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원 연구환경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반영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실 내 권력관계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와 학업 연구 관련 피해의 주요 가해자는 교수자와 선배로 확인되어 피해가 연구실 내 권력관계와 위계구조 속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인권침해 예방정책은 교수-학생 관계뿐 아니라 학생 간 상호작용과 대학원 공동체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실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 지도교수-대학원생 관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윤리 및 인권교육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문제제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자와 인권침해 및 학업연구 피해 경험자 대부분은 공식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참고 넘어가거나 주변인에게만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문제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부당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이다.

넷째,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이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 보호,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건 처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상담 및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정책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인권교육 및 홍보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대학원생의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원생의 인권 실태와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교육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권 존중 문화가 대학원 공동체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자료>

권해수,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권해수・이재창,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3.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16.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2022.

이인규 외,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5.

정윤경, 사이버섹스 중독 경향성과 성폭력 통념 및 허용도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2017.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한양대학교, 「2023년도 한양대 ERICA 캠퍼스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23.

<해외 자료>

Bifulco, A. & Brown, G. W. & Adler, Z., “Earlysexual abuse and clinical depression in adult lif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59(1), 1991.

Burt, M. R., & Katz, B. L.. “Coping strategies and recovery from rap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528(1), 1988.

Kerstin Wenninger & Anke Ehlers, “Dysfunctional cognitions and adult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11(2), 1998.

Norris, F. H., “Epidemiology of trauma: frequency and impact of different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on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0(3), 1992.

Sarah E. Ullman & Henrietta H. Filipas & Stephanie M. Townsend & Laura L. Starzynski, “Psychosocial correlates of PTSD symptom severity in sexual assault survivo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20(5), 2007.

Yank D. Coble & A. Bradley Eisenbrey & E. Harvey Estes & et al., “Violence against women: Relevance for medical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67(23), 1992.

[부록]

2025년도 한양대학교 ERICA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에서는 대학원생의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친화적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지의 각 질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혹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다가 중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어떤 제약도 없이 즉시 중단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Part A. 기초 정보 **문항 수 7**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아래와 같이 본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인권실태조사 연구, 통계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별, 나이,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조사를 위한 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 폐기

1. 동의 2. 동의하지 않음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3. 기타_____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25세 2. 25~30세 3. 30~40세 4. 40~50세
5. 50~60세 6. 60세 이상

3. 귀하의 현재 대학원 과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석사 과정 재학　2. 석사 과정 수료　3. 박사 과정 재학　4. 박사 과정 수료
5.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6.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기타_____

4. 귀하의 학기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1학기　2. 2학기　3. 3학기　4. 4학기
5. 5학기　6. 6학기　7. 7학기　8. 8학기
9. 9학기　10. 10학기　기타_____

5.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공학대학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 약학대학　4. 참단융합대학
5. 글로벌문화통상대학　6. 커뮤니케이션&컬쳐대학　7. 경상대학　8. 디자인대학
9. 예체능대학　10. 융합산업대학원　기타_____

6.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7. 귀하의 국적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복수국적일 경우 복수선택 가능)

1. 한국　기타_____

Part B. 성인지 감수성　문항 수 28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8.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매우 아니다~7.매우 그렇다 중 체크)

	1	2	3	4	5	6	7
1. 남편은 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법적 대리인이어야 한다.							
2. 지역사회에서 부인의 활동들은 남편의 위치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혼한 여성도 남자를 친구로서 자유롭게 사귈 수 있다.							
4.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							
5. 여자가 욕하는 것이 남자가 욕하는 것보다 더 불쾌하다.							
6.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 때 비록 남자가 여자를 매우 좋아하더라도 여자가 집안일은 해야한다.							

	1	2	3	4	5	6	7
7. 남자는 호감이 가더라도 관계를 주도하는 여자를 주의해야 한다.							
8. 결혼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경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9.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주된 책임은 경제적 지원과 규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10. 여자는 남편의 평판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조심해야 한다.							
11.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12.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							
13. 남자의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얽매일 수 없다.							
14.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의 첫 번째 의무는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5.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아내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16.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남편의 직업을 돕는데 더 신경써야 한다.							

1. 매우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 아니다.　4. 보통이다.
5. 그렇다.　6. 대체로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9.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1. 욕설이나 비방, 거친 언어로 이성을 공격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2.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3.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4.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5. 원치 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고의로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그/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6. 원치 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7. 연인 간에 여자의 “NO”를 무시하고 남자가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은 가능하다.				
8. 원치 않는 아내에게 남편이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9. 아동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10.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뒤쫓아 다니며 구애하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11. 상대가 싫다는 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				
12. 헤어지기 원하는 상대에게 만나주지 않거나 헤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행동은 허용가능하다.				

1. 절대로 안된다.　2. 대체로 안된다.　3. 경우에 따라 된다.　4. 전적으로 된다.

Part C. 성희롱 · 성폭력 피해 경험 문항 수 9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성희롱" 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 이란 형법 및 성범죄 관련 법률들에 따른 성폭력 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출처: 한양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10. 귀하는 우리 대학 재학 중 성희롱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예' 로 응답한 경우)다음 중 귀하가 경험한 성희롱 · 성폭력 피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내용
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불쾌한 성적 언급(수업 · 실습 · 모임 중 불쾌감을 줄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원하지 않는 관심 친밀감 표현(일방적 관심 표현, 외모평가, 성적 흥미나 요구에 대한 표현)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적 전화 또는 방문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제안(자고 가라, 같이 자자 등)
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손잡기, 허벅지에 손 올려놓기, 껴안기, 키스하기 등) -불쾌한 바디랭귀지(반복적 곁눈질, 지나치게 말착해서 서 있는 것 등)
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불쾌감을 주는 성적 자료 열거(수업실습 모임 중 불쾌감을 줄 정도로 성적 사진, 삽화를 보여주는 것 등)
4)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유포, 재유포(성적 촬영물을 성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지인에게 제공, 공유,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유포협박(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촬영 등 강요) -합성 제작 · 유포(딥페이크 등,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 편집 · 가공)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5) 스토킹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 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
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 4. 디지털 성범죄
5. 스토킹

12. 귀하께서 경험한 성희롱 · 성폭력의 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13. 귀하께서 경험한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남성 2. 여성 3. 잘 모름

14. 귀하께서 경험한 성희롱 ·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강의실 2. 기숙사
3. 동아리방 4. 사무실
5. 연구실 6. 피해자 주거지
7. 가해자 주거지 8. 회식장소(술자리 등)
9. MT장소 10. 학회 등 외부행사
11. 온라인 공간(SNS등) 기타 _____

15.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1. 가해자에게 시정요구
2. 인권센터에 신고
3. 경찰에 신고
4. 학내 기관(소속 대학, 학생회 등)에 도움요청
5. 외부기관(상담소 등)에 도움요청
6.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7. 그냥 참고 넘어감
기타 _____

16. (위 15번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하지 않음, 그냥 참고 넘어감' 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소문 등)
2.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되어서
3. 문제제기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5.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6.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기타_____

17.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좋은 시선 등)
2.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3.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4.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 진료 등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음
5. 졸업 및 취업이 미루어짐
6.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기타_____

18. 다음 중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2순위는 각각 다른 항목을 선택/1~5문항)

1. 정당한 처벌
2. 피해자 보호(가해자와 분리 등)
3. 상담심리지원
4. 법률지원
5. 주변인들의 지지

Part D. 인권침해 경험 문항 수 10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인권침해" 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가 훼손되었을 경우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관계속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는 학습권 침해, 폭언, 욕설 등의 인격적 모욕, 나이나 외모, 출신지역,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인종, 외모, 종교, 장애,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괴롭힘" 이란 지위 또는 관계등을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9. 귀하는 우리 대학 재학 중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욕설 등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따돌림, 모임참여 강요, 음주강요, 괴롭힘, 차별행위, 명예훼손 등

1. 예
2. 아니오

20. 귀하께서 경험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폭언, 욕설을 들었다.
2. 기합,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3. 집단적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4. 부적절한 개인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5.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샵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 받은 적이 있다.
6. 학교 행사나 모임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7.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 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8.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9.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기타_____

21. 귀하께서 경험한 인권침해의 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1. 교수
2. 강사
3. 직원
4. 조교
5. 학생(선배)
6. 학생(동기)
7. 학생(후배)
8. 기관장(총장, 부총장)

기타 _____

22. 인권침해 행위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남성
2. 여성
3. 잘 모름

23.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강의실
2. 기숙사
3. 동아리방
4. 사무실
5. 연구실
6. 피해자 주거지
7. 가해자 주거지
8. 회식장소(술자리 등)
9. MT장소
10. 학회 등 외부행사
11. 온라인 공간(SNS등)
기타 _____

24. 귀하는 인권침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1.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2.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3. 경찰에 신고했다.
4. 학내 기관(소속 대학, 학생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5. 외부기관(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6.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렸다.
7.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8. 그냥 참고 넘어갔다.

기타 _____

25. (위 24번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하지 않음, 그냥 참고 넘어감' 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소문 등)
2.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되어서
3. 문제제기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4.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5.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6.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기타_____

26. 인권침해 경험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좋은 시선 등)
2.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3.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4.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 진료 등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음
5. 졸업 및 취업이 미루어짐
6.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기타_____

27. 다음 중 인권침해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2순위는 각각 다른 항목을 선택/1~5문항)

1. 피해자 보호
2. 정당한 처벌
3. 상담·심리지원
4. 법률지원
5. 주변인들의 지지

28. 귀하는 인권침해 사건 처리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1순위, 2순위는 각각 다른 항목을 선택/1~5문항)

1. 정당한 처벌
2. 주변인들의 지지
3. 상담심리지원
4. 법률지원
5. 피해자 보호(가해자와 분리등)

Part E. 학업 및 연구 피해 경험 문항 수 18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29. 귀하는 우리 대학 재학 중 최근 4년 이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0. ('예' 로 응답한 경우) 다음 중 귀하가 경험한 학업 및 연구 피해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문항		
1	수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2	원하지 않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특정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3	타인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아 학업에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4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5	논문 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6	학술지 게재논문에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교수나 제3자의 이름을 올려줄 것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7	아이디어나 논문(레포트)내용을 도용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8	타인의 논문작성, 연구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한 경험(예, 논문대필, 논문 가로채기 등)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9	논문이나 연구 성과를 위해 충분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등재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0	부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연구에서 제외된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1	직접적으로 또는 관행에 따라 논문, 졸업작품, 추천, 학점, 장학금, 프로젝트 참여 등을 이유로 대가의 제공(선물, 금품, 논문대필, 성적접촉 등)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2	부당한 연구비 유용이나 명의 도용 등 불법행위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31. 귀하께서 경험한 학업 및 연구 피해의 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교수　　2. 선배

기타_____

32. 학업 및 연구 피해의 행위자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남성　　2. 여성

33. 학업 및 연구피해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강의실　　2. 연구실
3. 사무실　　4. 학회 등 외부장소
5. 온라인 공간(SNS등)

기타_____

34. 위와 같은 학업 및 연구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1. 학내 기관(소속대학, 학생회 등)에 상의　　2. 인권센터 상담 혹은 신고
3. 외부기관(교육부 등) 진정　　4.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5. 그냥 참고 넘어감　　기타_____

35. (위 34번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상의하였으나 문제제기 하지 않음, 그냥 참고 넘어감' 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 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2. 문제제기할 정도의 심각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해서
4.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서
5. 문제제기해도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기타_____

Part F.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문항 수 4

36. 다음 중 귀하께서 지난 1년간 받은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1. 폭력예방교육　　2. 인권교육　　기타_____

37. (받은 적이 있다면)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1.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 교육　　2. 학교에서 진행한 대면교육
3. 외부 기관의 온라인 교육　　4. 외부 기관의 대면 교육

기타_____

38. 귀하께서 받은 교육은 성희롱 · 성폭력 및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다소 도움이 되었다.
5. 매우 도움이 되었다.

39. 귀하는 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필요없다　2. 별로 필요없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Part G. 인권센터 인식 및 개선　　문항 수 8

40. 귀하는 한양대학교 ERICA에서 귀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2.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존중받는 편이다
5. 매우 존중받고 있다

41. 귀하는 학내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었다.　　2. (설문조사 실시로)지금 알게 되었다.

42. (위 41번에서) '알고 있었다' 고 응답한 경우 인권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침해 및 성평등 침해 상담 신고 경험
2. 인권센터 축제 부스, 인권강연회 등 행사 참여
3.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4.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5.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

기타_____

43. 귀하는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침해 및 성평등 침해 상담
2. 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분리
4.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5. 인권의식 향상 문화 행사
6. 잘 모르겠음

기타_____

44. 귀하는 학내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2.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3.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4.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5.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6.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

기타_____

45. 인권존중 대학원 문화를 위해 우리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46. 학내에서 필요한 폭력예방교육 혹은 인권교육 주제가 있다면 자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47.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CAMPUS HUMAN RIGHTS REPORT

ERICA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2026. 2

발 행 일 2026년 2월
발 행 처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생회관 1층 인권센터
(031) 400-4337
ehrc@hanyang.ac.kr
연구책임 홍정현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책임연구원)